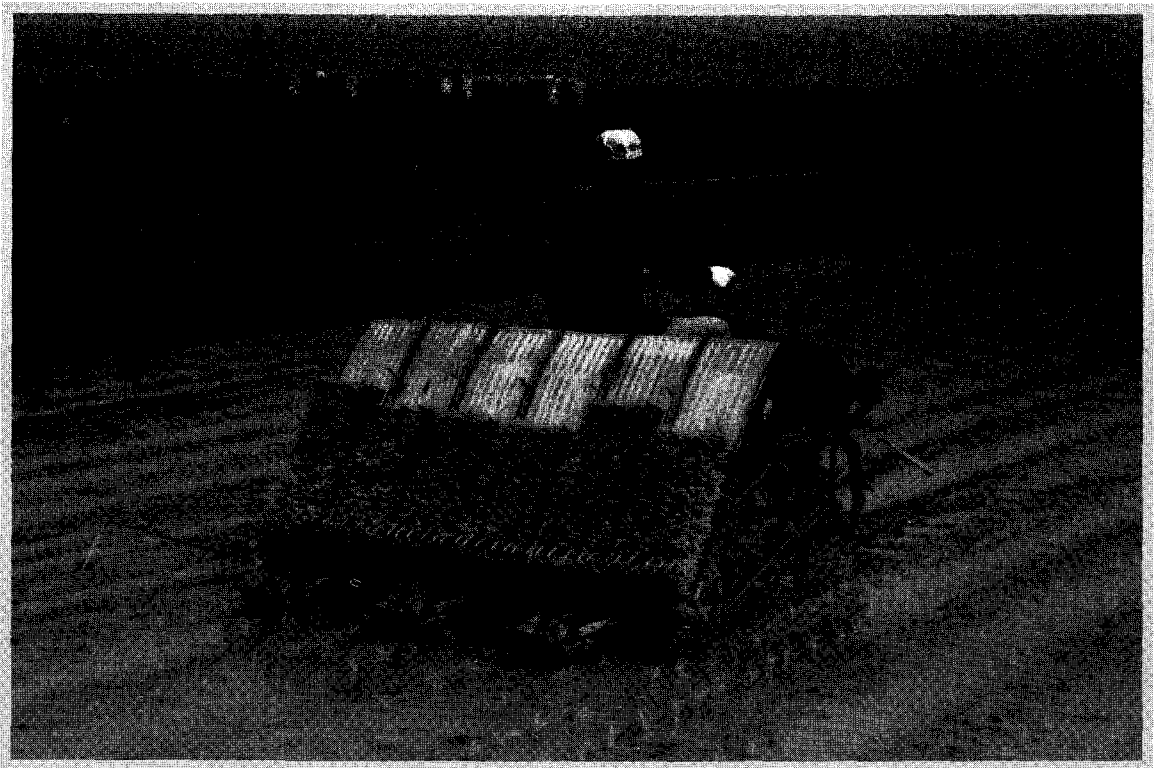




올해 쌀 생산목표 3,370만섬

농림수산부 「쌀생산 종합대책」 발표



쌀자급 최우선 농정과제로 추진

농림수산부는 쌀생산 종합대책의 추진으로 제2의 녹색혁명을 이룩한다는 각오로 올해 쌀생산 목표를 지난해 3천2백60만섬 보다 1백10만섬 많은 3천3백70만섬으로 잡고 이를 위해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 수준인 1백5만5천ha를 유지시켜 나가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2월1일 국내 쌀생산량이 매년 크게 줄고 있으며 세계 식량사정도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의 안정적 공급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히고 올해부터 쌀

자급기반 유지를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쌀생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농림수산부는 우선 올해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 수준인 1백5만5천ha를 유지하되 다수확 품종의 확대보급으로 10a당 수량을 지난해 4백45kg보다 15kg이 많은 4

농림수산부는 올해부터 쌀 자급기반 유지를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올 쌀생산목표는 지난해보다 1백10만섬 늘려잡고 이를 위해 모든 휴경논을 생산화하는 등 재배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고품질 다수성품종을 늘려 심기로 했다.

백60kg으로 잡아 3천3백70만섬의 식용쌀을 자급키로 했다.

휴경농지엔 영농대행 실시

농림수산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 현재 약 3만4천ha로 추정되는 전국의 휴경논을 모두 생산화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휴경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끝나는 즉시 인근 농가나 전업농, 농협의 작목반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을 통해 영농을 대행토록 하되 영농대행이 어려운 경우 농지법 규정에 따라 대리경작 명령을 발동해 벼를 심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간척중에 있는 토지나 골재채취중인 논은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치도록 조치함으로써 모든 농경지를 생산화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와 함께 최근 벼 재배면적이 줄고 있는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가 논에 포도나 고추 등 벼 이외의 작물을 심거나 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하고 논에 벼 이외의 작물을 심거나 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단위당 수량증가 없이는 3천3백70만섬의 올해 쌀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농촌진흥청 단수기준으로 10a당 5백kg이 넘어야만 장려품종으로 지정하는 한편 이같은 고품질 다수성 품종을 올해 벼 식부계획면적의 36% 수준인 37만9천ha에 심도록 할 계획이다.

계절진폭 확대, 직불제 도입검토

한편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대책과는 별도로 쌀 생산농가에 대해 일정소득을 보장해 재배의욕을 고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쌀소득이 적정수준에서 보장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를 위해 쌀값 계절진폭을 15%선까지 확대해 민간유통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벼 재배농가에 대해 직접지불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또 농협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어민후계자중앙연합회 등 16개 농민단체가 벌이고 있는 우리쌀 지키기 운동과 연계해 ▲한 필지 더 심기 ▲포기수 늘림심기 ▲지역에 맞는 품종 심기 등 쌀자급 3대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 쌀자급 분위기가 모든 농가에 확산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확대하고 올해사업을 종합평가해 용수개발비 등을 우선 배정하는 등 쌀자급 유공에 대한 시상도 확대키로 했다. **농약정보**